



5월의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가정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이고 주님을 통한 사랑이 우리의 각 가정을 통해 주변으로 흘러 나가게 하옵소서.
- 긍정이 긍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매사에 임하게 하시옵고 어렵고 힘들다고 외치는 이 시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마인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주님께서 주시는 긍정의 믿음으로 매사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 DCEM총재 故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DCEM가족들은 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복음전파에 더욱 각고의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주님, 전 세계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 저희가 지정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는 효도의 언약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한평생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 DCEM회원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 세상은 점점 생기가 사그라지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쟁의 회오리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속히 낙담이라는 좌절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회오리에서 탈출하여 모든 나라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지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운행하는 지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CEDRICK G JOSEPH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참 인생의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인생은 길을 찾기 위한 행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길을, 학문하는 사람은 학계(學界)에서 길을 찾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길로 접어들면 성공하지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갈 길, 가시밭 길,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가서 상처입고 절망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길을 잃었던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가 성 무물가에 물을 길으러 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다섯 번이나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심령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십니다. 돈이 길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갔다가는 실망할 것이고, 사업이 길인 줄 알고 사업을 따라갔다가는 절망하게 될 것이며, 정치가 길인 줄 알고 정치를 따라가면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것입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만이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2004년 해외성회

< 하와이 성회 >



① 2004 호놀룰루 'Walk on Water' 성회 전경 ②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한 하와이 호놀룰루 'Walk on Water' 성회는 미주지역 50개 교단, 5백여 교회, 1만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③ 우측부터 덴첸 목사(초청자), 조용기 목사,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19개의 섬과 환초를 포함하는 열도 중 가장 큰 섬, 하와이.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미국의 제도로, 하와이가 서구에 발견된 역사적 배경과 아시아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인종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있는 하와이에서 2004년 2월 27, 28일 양일간 미주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되었던 'Walk on Water' 성회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시작된 당시 성회는 미주지역 50개 교단, 5백여 교회,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은혜와 축복 속에 대성황을 이뤘던 성회였다. 하와이안 복음사역 단체인 HIM(Hawaiian Islands Ministries, 당시 대표 덴첸 목사)이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성회로, 목회자와 사모, 선교사 등 4천 6백여 명에게 성령을 통해 꿈과 소망,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는 주의 일꾼이 될 것을 강조했다.

본 성회를 개최하며 초청했던 하와이안 복음사역단체 HIM은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선교사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선교사역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며 선교사 및 목회자들에게 복음전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사역단체였다. 덴첸 목사(HIM 대표)는 당시 컨퍼런스가 교회사역으로 인해 지친 목회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언급하면서 조용기 목사를 초청한 것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당시 75만 성도를 이끌고 있었던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는 하와이인들에게 큰 꿈과 비전과 도전을 줬다면서 하와이 복음화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 현지 하와이 성도가 하와이 전통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2004년 개최한 'Walk on Water(물 위를 걸 어라)' 성회는 16번째 개최한 컨퍼런스로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는 성회에 참여한 미국인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감동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성회였다. 특히 당시 성회는 예년에 개최해오던 것과 달리 2004년은 성회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참석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집회장소였던 호놀룰루 컨벤션센터는 약 3천 5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집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참석자들은 조용기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환호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하와이는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땅이기도 하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도 상대적으로 적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한 진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 지기를 기도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꿈과 환상 속에 갖고 있던 4차원의 능력으로 3차원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장 31절)고 하셨습니다.

1.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서는 원래 자신을 닮은 영체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 3차원의 세계를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마귀의 꾀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벌을 받아 영이 죽고 3차원의 존재로 떨어져, 3차원의 깨어진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4차원의 성령께서 꿈과 환상을 갖고 일하셨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보시기에 좋은 꿈과 환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3차원적 현실을 만드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한복음 14장 1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일하시기 때

새로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중략)...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세기 1장 1~31절)

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려면 가슴속에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분명한 그림으로 그려서 성령님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집을 한 채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도화지에 분명한 꿈을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의 소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3.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꿈꾸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인생의 그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 솜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인생에 먹칠을 해 놓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아름다운 그림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얼룩지고 망가진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스스로 그려가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나머지 인생은 주님이 맡아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받아보시고 "내가 고쳐주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고치시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병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은 의인으로 바꾸고 허물 많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고 병든 자는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고 저주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죽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새로운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나가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세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말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 같이 우리는 입술의 말로써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꿈을 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1)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비로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뿌리'라는 TV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쿤타킨테가 노예상인들에게 잡혀 미국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노예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노예 해방이 되고자 유인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 건너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가문에 대한 가계조사가 발표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은 미국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이었으며, 다른 한 가문은 홍악범의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문의 후손들을 몇 대에 걸쳐 조사해 본 결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모두가 대통령, 장관, 상원의원, 목사, 판사, 교수 등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인물들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홍악범의 후손들은 알코올중독자, 도박꾼, 강도, 죄수들로 수도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혈통과 가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받고 이삭은 야곱을 받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대러라 (마태복음 1: 2-17)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왕까지 14대, 다윗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귀환 후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딱 맞추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독특한 족보 기록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6절)고 기록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었고, 요셉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양아버지로 삼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